불교 가르침 '필름'에 담아 대중 속으로

한국영화 100년, 불교영화 100년

지난 10월 27일은 '영화의 날' 이었다. 이는 김도산 감독의 〈의리적 구토〉가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상영된 날을 기념해 제정한 날로 올해로 꼭 100년을 맞았다. 한국영화 100년을 맞아 한국불교영화 역사를 되짚어봤다. 〈편집자 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영화사에 있어서 불교영화는 종교영화이지만 중요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만다라〉, 〈아제아제바라아제〉, 〈화엄경〉, 〈유리〉 등 흥행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서다.

한국 불교영화의 태동

한국 불교영화는 현재 약 50여 편 정도가 제작·상영됐다. 이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와 신광철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의 '한국 불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논문에 기초한 것으로 종교 계열 영화 중 가장 많은 편수를 보이고 있다.

한국 불교영화의 태동은 한국영화 역사와 함께 한다. 해방 직후와 1950년대는 영화의 소재로 쓰일 콘텐츠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대부분 불교 설화와 문학에 기초를 둔 영화들이 많이 제작됐기 때문이다.

현재 영화계에서는 최초의 불교영화로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 〈마음의 고향〉을 꼽고 있다.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영화화한 〈마음의 고향〉은 모성에 목마른 동자승과 주지 스님의 이야기가 사찰 배경으로 서정적으로 묘사돼 지금도 수작으로 손꼽힌다.

1952년에는 윤봉춘 감독의 〈성불사〉가 제작됐다. 〈성불사〉는 계몽 영화로 제작돼 당시 국방부 우수영화상을 수상했다.

초기 한국영화를 이끌어던 신상옥 감독은 1950년대 〈꿈(1955)〉과 〈무영탑(1957)〉을 내놓는다. 두 작품은 이광수와 현진건의 소설을 영화화 한 것으로 〈꿈〉은 베니스영화제에 출품되기도 했다.

또한 양주남 감독은 1958년 〈종각〉을 통해 비극적 생의 연쇄를 통해 연기적 세계관을 표현해 많은 호평을 이끌어냈다. 실제 이 작품은 베를린영화제에 출품됐다.

양적 발전하는 불교영화

1960~70년대 사회가 성장하면서 영화산업도 점차 확대됐다. 한국 불교영화도 마찬가지로 편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특히 호국불교의 개념을 가진 영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호국불교 영화들은 대부분 불심으로 왜적과 싸워 이기는 내용들이었다. 1962년에는 장일호 감독이 〈원효대사〉를, 1963년에는 안현철 감독이 〈사명당〉을 발표했다. 석굴암 완성 과정과 석불의 빛이 왜적을 쫓아냈다는 내용의 홍성기 감독의 〈대석굴암(1965)〉과 전기 영화인 김승옥 감독의 〈이차돈(1962)〉도 넓은 의미에서의 호국불교 영화로 평가된다.

1970년대에 들어서도 호국불교 영화는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장일호 감독은 〈호국 팔만대장경(1978)〉을, 전조명 감독이 〈서산대사(1972)〉을 제작했다.

이밖에도 효(孝)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에밀레종〉이 1961·1967년 두 번에 걸쳐 홍성기 감독과 권영순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용민 감독의 〈지옥문(1962)〉도 효 사상과 불교 설화가 접목된 작품이다.

1960년대 주목해야 할 작품은 신상옥 감독의 〈꿈(1967)〉과 〈다정불심(1967)〉, 장일호 감독의 〈석가모니(1964)〉이다.

1960년대 당시 감독들이 충효사상과 불교의 결합에 몰두한 데 반해 신상옥 감독은 비중있는 작가들의 문학 작품들을 영화화했다. 물론 소재주의 취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데올로기에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 불교 문예적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인정할 부분이다.

특히 〈꿈〉은 신상옥 감독에 의해 두 번 제작됐던 것과 더불어 배창호 감독에 의해 1990년 다시 제작됐다. 〈꿈〉은 〈삼국유사〉의 설화, 이광수의 소설, 영화가 이어지는 것으로 '동승' 과 함께 한국 불교영화의 소재적 장치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영화화해 개봉에 성공한 작품은 〈석가모니(1964)〉가 유일무이하다. 이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 영화화가 추진되기는 했으나 이뤄지지는 못했다.

한국 불교영화 시초 '마음의 고향'
80년대 구도소설 인기끌며 영화화
불교 영화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조폭코드 결합한 상업영화 제작도
최근엔 불교 내포한 영화 인기몰이

한국 불교영화의 완성기

1980년대는 불교영화의 '르네상스' 가 도래했다. 불교영화를 통해 임권택 감독이라는 거장이 탄생했기 때문이며, 예술성과 흥행성을 모두 담보한 영화 작품이 제작되기도 했다. 대종상·영평상 등 국내 영화상은 물론 해외영화제에서 굵직한 상을 휩쓸었던 것도 이 시기다. 이는 문학에서 구도소설이 인기를 끌며 영화로 확장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품 〈마음의 고향〉 스틸컷. 한국불교영화 시초로 평가받고 있다.

임권택 감독의 본령인 영화 〈만다라〉의 한 장면. 한국영화사에 길이 남을 명작이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1981)〉와 〈아제아제바라아제(1989)〉,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 김양득 감독의 〈우담바라(1989)〉이다.

〈만다라〉는 김성동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임권택 감독의 본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희복 진주교대 교수는 〈영화 속 열린 세상〉이라는 책을 통해 "10.27법난 이후 황폐해진 한국불교의 만성적인 무력감으로부터 하나의 위안과 각성을 암시해준 작품"이라며 "승속 갈등 가운데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묻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제아제바라아제〉는 한승원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순녀(강수연 분)라는 속퇴한 비구니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 기능을 살피고 있는 수작으로 임권택은 불교영화 감독으로 면목을 확고히 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당시 한국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작품세계를 보여준 작품으로 불교영화 70년사 안에서 손에 꼽을 수 있는 수작 중에 수작이다. 실제 이 작품은 제42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최우수 작품상과 제10회 영평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정작 배용균 감독 본인은 불교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불교적 소재를 삼고 있고 그 안에는 선적 사유체계가 수준 높은 영상 이미지로 함축돼 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불교영화는 점차 축소되지만,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한 예술 영화들의 명맥은 이어갔다. 또한 불교를 소재로 삼고 있지 않더라도 불교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한 '불교적' 혹은 '불교적으로 해석 가능한'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기이다.

이 시기 불교영화 중 주목할 만한 작품은 정지영 감독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1991)〉, 장선우 감독의 〈화엄경(1993)〉, 양윤호 감독의 〈유리(1996)〉 등이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는 비구승 심해와 비구니 묘연의 이야기로 수도의 길을 걸으면서 겪게 되는 인간적 번민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불교 영화이지만 금지된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은 작품이기도 하다.

〈화엄경〉은 고은 시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장선우 감독이 영화적 문법으로 새롭게 재해석해 호평을 받았으며,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알프레드 바우어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유리〉는 박상륭의 소설 〈죽음의 한 연구〉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송희복 교수는 "작가주의적인 착안을 통해 한국영화의 한 전형을 창조하려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불교 영화"라고 평가했다.

상업 영화 유행, 불교영화 황혼기

2000년대 불교영화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이는 상업 영화로 완전히 영화업계가 자리를 잡았고, 불교는 더 이상 매력적인 소재가 아니게 됐다는 반증이다. 그런 와중에도 몇몇 작품은 흥행에 성공했다.

2001년 김성수 감독의 〈무사〉는 지산 스님(이두일 분)의 삶과 의지를 통해 고려사의 흥망성쇠를 같이 한 불교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2001년 개봉한 〈달마야 놀자〉는 불교와 상업영화가 성공적으로 만난 작품이다. 당시 유행했던 '조폭 코미디' 장르가 만나 '불법(不法)을 불법(佛法)으로 교화한다' 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흥행에도 성공해 서울 관객 125만, 전국 377만 관객 동원으로 2001년도 한국영화 흥행 순위 5위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속편인 〈달마야 서울가자〉가 제작되기도 했다.

2000년대에는 별다른 불교영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2010년대에 이르러 종교 분야 다큐멘터리가 유행하면서 독립·다큐 영화 부문에서 다시 기지개를 피고 있다.

2010년 개봉한 윤용진 감독의 〈할〉은 보육원에서 형제 같이 자라나 서로 다른 종교 성직자의 길을 가게 된 두 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화려한 영상미가 돋보이기는 하나 너무 파편적이고 난해해 호불호가 갈리기도 했다.

법정 스님 입적 후 제작·발표된 〈법정 스님의 의자(2011, 임상구 감독)〉는 어린 시절부터 입적에 이르기까지 법정 스님의 모든 일생이 담긴 휴먼 다큐멘터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에는 이창재 감독의 〈길 위에서〉가 개봉했다. 불교계를 중심으로 열풍이 불었던 작품으로 비구니 수행도량 '백흥암' 의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를 찬찬한 영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불교를 소재로 하거나 불교적 해석들이 가능한 영화들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과 함께 1·2〉다.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주호민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영화화해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다.

또한 장재현 감독은 불교를 소재로 한 공포영화 〈사바하〉를 올해 개봉했다. 불교적 소재와 장치들로 불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내용은 살펴보면 기독교적이라는 해석들도 적지 않다. 불교의 외피를 입은 '종교적 혼종' 영화나 드라마는 근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20년도 남경 의대(중의학)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2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